



발간등록 75-502000-00010-08

열린 포항

2016년 8월호 통권156호



8월 동해바다

김나연

하지 지나고
태양은
바다로 묶인 두레박을 슬쩍 풀어본다.

밤새 사람들이
날날 별에 걸어 놓은
날날 빛의 꿈 알갱이가

까르르 부딪쳐 웃으며
지상으로 와르르 쏟아진다.

그제야
8월이 푸른 바다가 된다.

김나연

시인
포항문인협회회원
경북스토리클럽회원
2002신라문학대상
2002대경교련문화상수상

열린 포항

2016년 8월호 통권156호



창조경제 허브도시, 포항

Creative 포항

04 Creative 포항기술장터



사람중심 행복도시, 포항

시민행복

06 동해남부권 도시공동체- 해오름 동맹

08 포항 해수욕장의 파수꾼! 수상안전요원

미래를 여는 도시, 포항

미래 & 꿈

10 포항시 드림스타트



젊음이 넘치는 해양관광도시, 포항

동네방네

12 대전 3.1의거 기념관

관광도시

14 월포 청소년 락 페스티벌

15 포항바다국제연극제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16 시정소식

17 의정소식

18 상생프로젝트

19 문화소식

20 생활정보

21 건강정보

22 포항스토리텔링

23 독자 참여

표지설명

올해 새로 생긴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모래썰매장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다



창조경제의 텃밭

Creative 포항기술장터

특허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는 Creative 포항기술장터,
강소기업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



강소기업 성장의 텃밭, 포항기술장터

지난 6월,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성과인 특허기술을 지역기업에 이전, 기업 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제2회 Creative 포항기술장터>가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렸다.

포항기술장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부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특수시책으로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포항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2회 Creative 포항기술장터

이번에 개최된 2016년도 포항기술장터행사를 통해 RIST(연구기관)와 미래포항테크(주), (주)제노랩과 (주)에크드포레 등은 실질적인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밖에 기술보증기금에서는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올해 11월에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기술장터 준비

포항기술장터 기술이전사업의 장점은 기업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인력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술장터를 통해 지역 강소기업들은 대학



우수 특허기술을 이전 받기 위해 모인 강소기업들

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특허 기술을 이전 받아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적용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53개 기업, 70개 기술에 대해 대학과 연구개발(R&D) 기관의 공급기술 218건을 발굴, 이 가운데 25개 기업에 28개 기술이전을 지원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이전 받은 기술을 활용해 해외기업과 14억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11월에는 현대, 기아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우수기관을 참석시켜 지역 기업에 공개하는 대규모 기술이전 시장인 <제3회 Creative 포항기술장터>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센터는 포항과 경주 상공회의소, 철강관리공단, 포스텍 등 20여개 기관을 주축으로 '포항기술장터 활성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기술이전 사업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사람중심
행복도시,
포항

시민
행복

포항시
ipohang.org

울산광역시
ulsan.go.kr

경주시
gyeongju.go.kr

동해남부권 도시공동체

해오름 동맹

포항시와 경주시, 울산광역시 200만 주민은
포항~울산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해오름 동맹'을 출범시키고,
동해남부권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해오름 동맹

포항시와 경주시, 울산광역시는 지난 6월말, ‘해오름 동맹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해오름 동맹 출범의 의미는 특별하다. 3개 도시는 역사적으로 신라문화권, 공간적으로 국도 7호선을 통해 1시간대 생활권 안에서 살아왔다. 동해남부권 도시공동체인 ‘해오름 동맹’은 세 도시가 모두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지역이면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일으킨 ‘산업의 해오름’ 지역이라는 점,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해오름’이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름 지어졌다.



포항~울산 고속도로

‘해오름 동맹’은 인구 200만명, 경제규모 95조원으로 환동해권 최대 도시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포항의 철강을 비롯 경주의 문화관광산업, 울산의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이 입지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총생산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심장부가 될 이 거대공동체 ‘해오름 동맹’은 △산업 R&D △도시 인프라 △문화교류사업 3대 분야에서 7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3대 분야 7개 사업 공동 추진으로 새로운 광역발전모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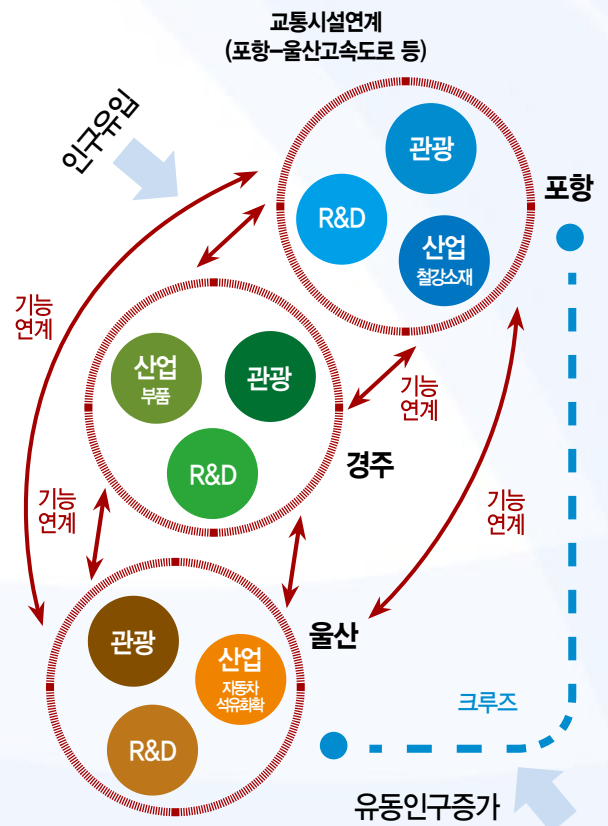
7개 협력사업이란 ‘산업 R&D’ 분야는 현재 추진 중인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지역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간 협력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구성에 공동 협력하고, ‘도시 인프라’ 분야는 2018년에 완료되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대규모 폐선 부지를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오름 동맹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문화교류사업’ 분야에서는 동해남부권 관광벨트 구성을 위한 연계협력 뿐 아니라, 문화체육 및 경제교류 사업을 상호 지원하고, 울산 복구와 경주 외동읍



영일만대교 조감도

일원에 걸쳐있는 ‘관문성 복원 정비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3개 도시는 영일만횡단대교 건설(포항), 신라왕경 복원 및 정비 특별법 제정(경주), 산재모병원 건립(울산) 등 지역별 현안사업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연구원과 울산발전연구원의 공동 주관으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동해남부권 상생발전 전략 연구용역’도 착수해 실질적인 네트워크도시 구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네트워크도시’는 기존의 중심도시-위성도시 간 종속적, 의존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연계와 상호보완성을 기초로 도시권 전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광역발전 모델이다.



포항 해수욕장의 파수꾼! 수상안전요원

바닷가 피서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상안전요원.
이들은 해수욕장 개장 두 달 전부터
피서객 수상구조에 대비해 맨몸구조, 장비구조를 위한
기초체력을 다진다.





우리는 한 팀이다

해수욕장의 여름을 준비하는 사람들

수상구조요원이 되려면 해양구조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자유형, 평형, 잠영, 입영 등의 수영법과 수상구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웨이트 캐리와 장비구조 등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자격증을 딴 이후에도 2년에 한 번씩 재시험을 거쳐야만 구조요원으로 활동할 수가 있다. 다급한 실전에서는 수영과 구조 등의 기술 외에도 강한 체력과 지구력이 요구되므로 평소의 체력 관리가 그들에게 필수적 임무다.

포항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들

인터뷰 중에도 그들은 바다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고 긴장된 눈빛으로 바다를 주시하고 있었다. 바다시청이 보이는 영일대해수욕장에는 좌우 500m 해상에 노란 부표가 열을 지어 떠 있고 그 뒤로 붉은 부표가 떠있다. 노란 부표 안쪽이 수영 가능 구역이고, 노란 부표와 붉은 부표 사이가 관리 구역, 붉은 부표 뒤로 레저 구역이라고 한다. 인명구조요원들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500m 해상의 노란 부표 안쪽인 수영가능지역을 중심으로 피서객들의 안전을 지킨다.

영일대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의 하루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박광우, 김도협, 정대호, 김성엽, 천성현 요원을 만났다. 20대의 훗칠한 외모에 잘 다져진 체격이 탄탄해 보인다. 총 7명의 요원 중 낮에는 5명이 근무하고 저녁에는 2명이 교대로 근무한다. 아침 9시에 다섯 명의 요원이 출근을 하면 함께 30여분 몸을 푼다. 그리고 제트스키 등의 안전장비를 점검한다. 바다시청 좌우에 설치된 키가 큰 망루에 각 한 명씩의 요원이 낮 동안 바다를 주시 관찰한다. 남은 요원은 사무실에서 바다와 피서객들을 관찰하고 안전을 점검하고 팀을 나누어 매시간 바닷가를 순회 순찰한다.



피서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상안전요원



포항해경의 익수자 심폐소생술 훈련모습

피서객들에게 바다는 더위를 피하고 휴식을 즐기는 낭만의 공간이지만 이들 요원에게 바다는 잠시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삼엄한 근무처다. 영일대해수욕장은 시내와 인접하고 인근 아파트촌과 가까워 낮과 늦은 밤까지도 많은 인파로 붐비는 곳이기 때문에 수상안전요원들은 잠시도 경계를 늦출 수가 없다.

해수욕 안전을 꼭 지켜주세요

그들이 말하는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음주 후 수영은 무조건 금지다. 수영 실력을 자만하여 노란 부표의 안전선을 넘어 수영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간혹 튜브나 보트를 타고 자신도 모르게 안전선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주의가 필요하다. 야간 수영은 기본적으로 금지다. 여름은 기후변화가 잦다. 특히 국지성 호우와 너울성 파도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안전요원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여름에도 많은 사람들이 포항 해수욕장에서 바다가 주는 즐거움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기대해 본다.

문의 : 바다시청 ☎054)241-2831



0~12세, 꿈을 향한 출발 & 성장까지

포항시 드림스타트

포항시 드림스타트사업단 사무실은 포항시 북구 선착로 18-10에 있다. 이곳은 포항시 취약계층 아동의 양육과 전인(全人)적 교육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단이다.

포항시 드림스타트 사업단

포항시의 취약계층자는 약 2,000명이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이 여기에 포함된다. 매년 연초가 되면 드림스타트 사업단 소속의 복지사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밀도 높은 1:1 위기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근거로 연간 복지 혜택을 받을 드림스타트 대상자를 선별한다. 포항시에서는 2016년 현재 650여명의 아동이 대상자로 지정되어 꿈을 향한 힘찬 걸음을 걷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태아부터 만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이 대상자이다. 이들 아동이 차별 없는 권리를 가지며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동 중심의 가족 프로젝트다. 그래서 사무실 입구에는 유엔 아동헌장이 붙어있다.

- 1. 어린이는 애정과 이해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1. 어린이는 적절한 영양과 의학적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1. 어린이는 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을 충분히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 1. 어린이는 자신의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
- ...중략...
- 1. 어린이는 그 어느 누구도 구분·차별 없이 이상의 모든 권리를 누릴 권리가 부여된다.

-유엔아동헌장 중에서.

이러한 유엔아동헌장의 기본 취지는 취약계층의 아동 복지를 돕는 드림사업단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아동의 보호와 건강, 교육 그리고 부모교육까지

대상 아동들은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그리고 영양교육 등의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예방과 기타 생활환경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개별 관리가 시행된다. 또한 기초학습을 돕고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와 상담치료를 하기도 한다. 대상 아동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는 아동의 가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도와준다.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 발달을 돕는 부모 교육이 개별 또는 집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태아의 경우에는 임신부의 산전 산후 건강과 생활관리 그리고 부모 소양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포항시 드림스타트의 사람들

손화자 팀장을 포함한 4명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보육교사들이 사업 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이 되어서인지 여느 단체보다 밝고 활기차고 적극적이다. 무엇보다 팀웍이 잘 형성되어 있다. 포항시는 2007년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 신청을 시작으로 2008년 우창동과 중앙동에 포항 드림스타트 센터를 개소했고 현재까지 15개 동과 29개 읍면지역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였다.



미 해병대와 함께하는 드림캠프

2010년, 2013년, 2014년 드림스타트 최우수 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미해병대 캠프무적과 함께하는 FUN FUN DREAM CAMP

드림스타트 사업단은 2010년부터 미해병대 캠프무적 부대와 연계하여 어린이날과 시민의 날 다양한 체험 행사 등을 함께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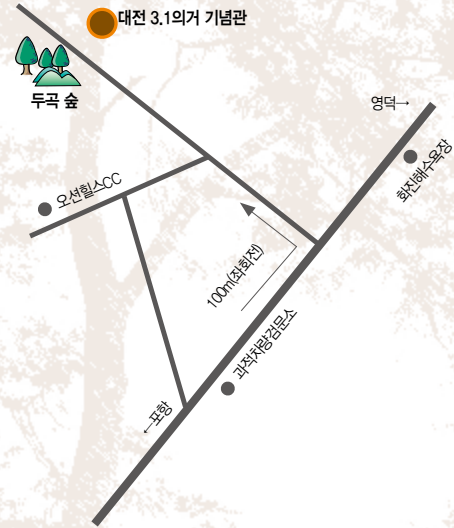
최고의 인기 만점 행사는 「드림스타트 여름 캠프」다. 2016년 미해병대 캠프무적부대와 함께하는 여름 캠프는 OK그린청소년수련원에서 8월 11일부터 12일, 1박 2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여름캠프에는 초등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 중에서 50여명이 참여한다. 영어체험학습은 물론이고 야외 물놀이, 담력훈련, 래프팅 등을 체험하며 또래 관계성과 사회성 등을 배우게 된다. 앞으로도 포항 드림스타트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게 되으면 한다.

문의 : 포항시드림스타트 ☎054)270-3073

대한독립을 외치던 14인 의사의 기록

대전 3.1의거 기념관

1919년 3월 일본의 압제에 맞서 나라의 국권을 되찾기 위해
민중들은 이곳에 모여 만세를 불렀다.
매년 3.1절이 되면 기념행사와 만세 재연 행사를 개최해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는 곳, 대전리 두곡 숲.
포항에서 영덕 울진 방면 7번 국도를 달리다 보면
넓고 푸른 동해바다의 장관과 함께 송라면에 다다른다.
그 곳에 두곡 숲과 기념관이 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송라면 '두곡 숲'

마을의 개울가에 벚집으로 엮은 뜰 모양
의 바위가 있어 대전리라고 불렀다고 한
다. 또한 3.1 만세 운동이 벌어졌던 곳이라
하여 만세마을, 만세촌이라고도 불린
다. 마을의 초입에 두곡 숲이 있는데 들의
지형이 두(斗)자와 닮았다고 하여 두곡 숲
으로 불렸다고 한다.

이 숲은 마을의 역사와 깊이 관련되어 왔
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 부대가 인근 화진
백사장에서 주둔하여 노략질을 일삼던 때
에 이 지역의 의병부대가 이곳 두곡 숲에
매복해 있다가 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
다고 전한다. 1919년 3월 일본의 압제에
맞서 나라의 국권을 되찾기 위한 민중들의
만세운동도 이곳에서 벌어졌다.



대전 3.1의거 기념관



전시된 항일운동 자료들



3.1절 기념 대한독립만세 재연 행사



당시 태극기를 제작했던 모습



오래 전 이 마을에 살던 공씨 부부가 숲을 조성했다고 전해지는데 당시는 둘레 약 8km의 넓은 숲이었다고 한다. 마을 동쪽의 큰 숲이어서 대동수라고도 불렀는데, 현재 대부분 농지로 변하고 수령이 200~500년인 노거수 수십 그루만 숲을 지키고 있다.

대한독립운동의 성지 '대전 3.1의거 기념관'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길120번길 22-5에 위치한 기념관은 2001년 6월에 건립되었다.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송라면 14인 의사를 기념하는 곳이다. 기념관이 위치한 곳은 과거 3.1 만세 운동 당시 태극기를 제작했던 장소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대전 14인 3.1의사 유족회'의 이병찬 회원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한다. 기념관에는 만세 운동을 주도한 대전리 14인 의사에 대한 일제법원의 형사 재판 판결문, 각종 문서와 이후 항일운동에 대한 공적으로 의사들이 받은 공훈 증서, 사진 그리고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실 안쪽으로 나 있는 출입문을 나가면 14인 의사 중 한 사람인 이준석 의사의 생가가 복원되어 있다. 주위로 키작은 흙벽이 둘러쳐져 있는데, 방 안에는 만세운동을 위해 태극기를 제작하던 모습이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다. 생가 마당의 화단에는 무궁화가 피어 있고, 화단 옆에는 당시 거사를 위해 사용되었던 교회의 종이 아직도 남아있다.

송라면 대전리의 3.1 만세운동

1919년 송라면 대전리 윤영복 선생 외 13인과 청하면 오용간 선생 외 8인이 보경사 서운암에서 은밀하게 거사를 논의하여 3월 22일 오후 1시 청하장날에 맞춰 수백군중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일본경찰과 흥해 일본헌병대의 무자비한 무력탄압으로 만세운동은 저지당하고 독립투사 23인은 투옥되었다. 이 중 윤도치 의사는 일본헌병대의 갖은 악형으로 옥사하였고, 송라 대전리 만세 운동의 대표인 14인은 일경에 체포되었다. 하지만 3월 27일 남은 마을사람들은 두곡 숲에서 다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에도 옥고를 마친 의사들은 대전리를 중심으로 청년회를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문의 : 대전 3.1의거 기념관 ☎054)262-0513

Rock
Festival

제1회 월포 청소년
1st Wolpo Teenager Rock Festival

락 페스티벌 2016

월포해수욕장은 아름다운 바다와 젊음이 넘쳐나는 동해안의 대표적 여름휴양 명소이다. 낮에는 해수욕을 즐기고, 밤에는 여름 해변에서 펼쳐지는 열정적인 공연을 즐기므로써 피서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 한다.

한여름! 동해의 밤바다! 강한 비트의 락(Rock) 선율이 울려 퍼지면, 여름밤 젊음과 열정이 한데 어우러진다. 8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포항 월포해수욕장에서 제1회 월포 청소년 락 페스티벌이 열린다.

주요 공연구성은 락밴드, 스카밴드, 재즈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밴드공연, 라이브 퍼포먼스, 댄스공연, 댄스트롯까지 음악성과 대중성이 조화된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직장인밴드, 스쿨밴드 등 아마추어밴드의 경연대회가 함께 펼쳐진다.

공연 외에도 월포해변 노래자랑, 후릿그물 체험, 놀이기구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축제의 재미를 더해준다.

이번 락 페스티벌에는 방송무대와 전국의 라이브 무대를 질주하고 있는 스카(Scar)밴드인 '킹스톤 루디스카(Kingston Rudieska)', 락 페스티벌에 빠질 수 없는 '갤럭시 익스프레스(Galaxy Express)', 또한 탭 댄싱까지 선보이며 가는 곳마다 관객을 사로잡는 '사운드 박스(Sound Box)'와 재즈에서 락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유사랑 밴드(Yousarang Band)' 등이 참여한다.

폭발적인 무대매너로 관객을 열광시키는 라이브 그룹 '비스타(Bestar)'와 '블루 스케치(Blue Sketch)'의 8090노래무대가 펼쳐지고, 매일 공연 마지막에는 DJ와 함께하는 해변 댄스파티가 준비되어 있다.

8월 4일(목)

응답하라 8090
블루 스케치,
MJC 댄스쿠루
DJ 댄스파티
EDM & 유로댄스
프린지 공연

8월 5일(금)

갤럭시 익스프레스
비스타
피해의식
청소년 밴드경연
버싱킹 공연

8월 6일(토)

킹스톤 루디스카
유사랑 밴드
GAHS
Mary
직장인 밴드경연
해변 DJ 파티

8월 7일(일)

사운드 박스
뮤즈
싸군
만장 크루
스쿨 댄스팀



킹스톤 루디스카



유사랑 밴드



사운드 박스

문의 : 문화예술과 ☎054)270-2872~4

제16회 포항바다국제연극제 (포항국제대학연극제)

자유로운 상상을 위한 첫 번째 만남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2016 포항바다국제연극제는 “자유로운 상상을 위한 첫 번째 만남”이라는 주제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포항시청 대강홀과 포항시립중앙아트홀(육거리)에서 개최된다.

세계적 명문대학들이 펼치는 연극경연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제대학연극페스티벌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한국을 대표하여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한양대학교 연극학과,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경북지역의 대경대학교 연극학과가 참가한다. 해외 대학으로는 피지컬 시어터의 선두주자인 독일의 폴크방극립예술대학교, 공리, 장뜨이, 유덕화, 탕웨이 등 세계적인 배우를 배출한 중국 연극예술의 최고 학부인 중앙희극학원이 참가하여 쉽게 접할 수 없는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

예술과 교육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래밍

이번 축제의 특징은 여느 연극축제와 달리 예술적 목적과 교육적 목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였다. 관객들이 전 공연을 모두 다 감상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였다. 매 공연이 마칠 때마다 참가 대학 교수들이 진행하는 작품설명회와 질의응답, 그리고 연기 워크숍을 통하여 관객들이 느끼는 예술적 성취와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8월 31일(수)	9월 1일(목)	9월 2일(금)	9월 3일(토)	9월 4일(일)	
<p>축하공연 / 중앙아트홀</p> <p>명동부르스 대경대학교 연극학과 오후 4:00~5:30 7:30~9:00</p>	<p>개막식 / 대강홀</p> <p>중앙희극학원/경극 중앙대/소리별이야기 오후 7:30~9:50</p>	<p>중앙아트홀</p> <p>외투 한양대학교 연극학과 오후 2:00~4:00</p> <p>대강홀</p> <p>패왕별희 외 2작품 (중국) 중앙희극학원 오후 7:30~8:30</p>	<p>중앙아트홀</p> <p>스틱스 해변에서 (독일)폴크방예술대학교 오후 2:00~3:20</p> <p>대강홀</p> <p>오이디프스 중앙대학교연극학과 오후 7:30~9:00</p>	<p>대강홀</p> <p>십이야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오후 2:00~3:40</p>	
 <p>중앙희극학원 패왕별희</p>	 <p>중앙대학교 소리별 이야기</p>	 <p>한양대학교 외투</p>	 <p>폴크방예술대 스틱스해변에서</p>	 <p>중앙대학교 오이디프스</p>	 <p>세종대학교 십이야</p>

문의 : 문화예술과 ☎054)270-2872~4

‘도시 재창조 시민소통 한마당’ 개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도시디자인



국지도 20호선 동빈내항 횡단교량 설치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

포항시는 7월 13일, 포은중앙도서관 어울마루에서 ‘도시 재창조 시민소통 한마당’을 개최하고 포항시의 도시재생 전략을 주제로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포항시는 구 포항역에서 효자역에 이르는 4.3km 구간의 폐철도부지의 공원화사업을 비롯해서 구 포항역 주변 복합개발 사업 등 도시 재창조 프로젝트 주요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이밖에도 이날 행사장 입구 양쪽에 세워진 ‘시장님 오래 바꿔주소’ 코너에는 “구포항역을 포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주세요,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해요” 등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포항시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구도심을 재생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전제하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별로 적합한 도시재생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심재생 재창조 프로젝트는 △구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폐철도 부지 공원화 사업

△상대로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도시침수 예방사업 △모바일 핀테크거리 조성 △도심 해안변 워터폴리 △국지도 20호선 동빈내항 횡단교량 설치 △포항구항 해양공원 조성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 △문화도시 포항 조성사업 △송도 솔밭 도시숲 조성 △송도 백사장 복구사업 △포항운하 주변 개발 활성화 △포스코 야간 경관조명 개선 등 총 15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폐철도 부지 공원화 사업

7대 후반기 포항시의회 원구성 마무리... 본격 행보

의장 문명호 · 부의장 정해종 의원 선출 - 시민중심, 현장중심, 정책중심의 의회 만들어 가겠다



포항시의회는 7월 1일 제231회 임시회를 열어 7대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원 구성을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의장에는 5선의 문명호 의원, 부의장에는 3선 정해종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 7대 후반기 원구성으로 의회운영위원회(8명)에는 정수화(위원장), 백강훈(부위원장), 강필순, 김상민, 박희정, 이상훈, 이해수, 홍필남 의원으로 구성됐고, 자치행정위원회(7명)는 백인규(위원장), 박희정(부위원장), 김성조, 김일만, 복덕규, 서재원, 정수화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경제산업위원회(8명)는 정석준(위원장), 강필순(부위원장), 박승훈, 방진길, 백강훈, 이철구, 정해종, 한진욱 의원으로, 복지환경위원회(8명)에는 차동찬(위원장), 김상민(부위원장), 박경열, 이나겸, 이동걸, 이순동, 이용성, 홍필남 의원, 건설도시위원회(8명)는 안병국(위원장), 이해수(부위원장), 김상원, 김우현, 이상근, 이상훈, 이재진, 이해수, 장복덕 의원으로 구성됐다.

4일 상임위 구성을 마친 포항시의회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출범식을 가졌다.

7대 후반기 시작을 알리는 출범사를 통해 문명호 의장은 “제7대 후반기 포항시의회는 시민중심, 현장중심, 정책중심의 의회를 만들어 갈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인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는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나아가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포항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상호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조화된 상생의 정치를 펼쳐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경주국제뮤직페스티벌

Gyeongj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Classic Festival | 4일(목)

경북도립교향악단(지휘 이동신)
바리톤 김동규
Cellist Jaroslaw Domżał(폴란드)
Flutist Philipp Jundt(독일)
소프라노 이민정
7 Tenori

Jazz Festival | 5일(금)

웅산밴드(한국)
Chris Varga Quartet(호주)
Andrew Page Trio(미국)

Brass Festival | 6일(토)


Brass Ensemble "O-Brass"(벨기에)
Flute Trio "IRIS"(일본)
코리아원드팔하모니 Trumpet Ensemble(한국)

우리음악 Festival | 7일(일)

경북도립국악단

2016. 8. 4(Thu) ~ 8. 7(Sun) 20:00 **보문수상공연장**

주최  경 주 시

주관  Foundation of Gyeongju Culture
(재)경주문화재단

후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GTC 경상북도관광공사

디지털 山水人

일시 **2016. 7. 14(목) ~ 10. 2(일)**
 장소 포항시립미술관 1,2전시실
 작품 회화, 사진, 영상
 작가 고명근, 김형기, 민, 임창민, 임택, 하광석, 황인기
 문의 포항시립미술관 ☎054)250-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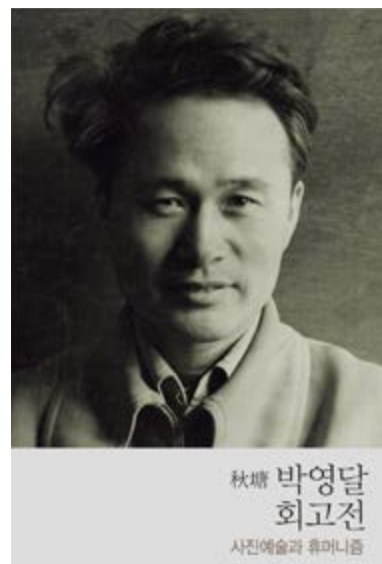
제11회 장두건미술상 수상작가전 최지훈 - Self Portrait

일시 **2016. 7. 14(목) ~ 10. 2(일)**
 장소 포항시립미술관 3전시실
 작품 회화
 작가 최지훈
 문의 포항시립미술관 ☎054)250-6000



추당 박영달 회고전 사진예술과 휴머니즘

일시 **2016. 7. 14(목) ~ 10. 2(일)**
 장소 포항시립미술관 4전시실
 작품 사진 및 아카이브
 작가 박영달
 문의 포항시립미술관 ☎054)250-6000



2016 시크릿 쥬쥬 시크릿플라워 댄스파티

일시 **2016. 8. 13(토) 11:00, 14:00, 16:30**
2016. 8. 14(일) 11:00, 14:00
 장소 포항시청 문화동 대점홀
 티켓 R석(1층) 40,000원 ▶ 예매가 28,000원
 S석(2층) 35,000원 ▶ 예매가 24,500원
 문의 ☎1566-0340



영일대해수욕장 모래썰매장 개장

일시 **2016. 6. 25(토) ~ 8. 21(일)**
<76일간>
 장소 영일대해수욕장 시계탑 200m 전방
 안내 시간 : 매일 10:00 ~ 18:00
 썰매대여 : 무료
 문의 해양산업과 ☎054)270-2842~4



월포해수욕장 후릿그물 체험행사

일시 **2016. 7. 16(토) ~ 8. 7(일) 중 주말 오전(총 8회)**
 장소 월포해수욕장 내
 내용 전통후릿그물 체험참여 및 시식(무료제공)
 문의 월포해수욕장변영회 ☎054)232-9770
 해양산업과 ☎054)270-2842~4
 ※날씨·풍량으로 연기될 수 있으니 1일 전 행사여부 확인바랍니다.

구룡포해수욕장 오징어 맨손잡기 체험행사

기간 **2016. 8. 5(금) ~ 7(일)**
 장소 구룡포해수욕장 내
 내용 8. 5(금) : 개막식 / 8. 6(토) : 해변가요제
 8. 6(토) ~ 7(일) : 오징어맨손잡기 체험참여 및 시식(무료제공)
 문의 구룡포청년회의소 ☎054)276-2966
 해양산업과 ☎054)270-2842~4

마을세무사 운영 홍보

마을세무사란? 시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

기간 2016. 7. 1(금) ~

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
※보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상은 상담 제외

방법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마을세무사 확인 또는 시청 재정관리과, 남.북구세무과

상담 국세 및 지방세 세무 상담
1차 :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
2차 : 부족한 경우 직접 대면하여 2차 상담

문의 재정관리과 세정팀 ☎054)270-2481

청소년 여름방학 자원봉사 프로그램 <Mind friend's> 안내

기간 2016. 8. 9(화)~11(목) 10:00~12:00

대상 중학생 1,2,3학년 20명

접수 8. 3(수)까지 전화접수 ☎054)270-4918

내용 정신건강인식개선교육 및 캠페인, 천연비누 만들기(참여일별 자원봉사시간 2시간 인정)

문의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054)270-4918

2016년 생명사랑 중독예방 공모전

기간 2016. 8. 11(목) 18:00 까지

자격 포항시 관내 지역주민 누구나(연령제한없음)

분야 자살예방 : 포스터, 카툰 혹은 스토리보드 만화 5컷 이내

- 자살예방을 위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 자살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천, 홍보할 수 있는 내용
- 8절 또는 4절, 표현재료 자유

4대 중독예방 : 사진

- 4대 중독예방(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천, 홍보할 수 있는 내용
- 자유로운 형식의 사진 가능(스마트폰, DSLR 등), 포토샵 등 편집가능

※주제별 중복출품 가능하나 중복수상 불가

문의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054)270-419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054)270-4149

2016년도 주민세(균등분) 정기분 납부

기간 2016. 8. 16(화) ~ 8. 31(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8. 1) 현재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장을 둔 개인인 경우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소득세)법상 과표가 4,800만원 이상인 자

납부방법 카드(은행CD/ ATM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가상계좌 입금, 지방세ARS시스템 (☎ 1588-5260) 이용 납부

문의 남구세무과 시세팀 ☎054)270-6241
북구세무과 시세팀 ☎054)240-7241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기간 연중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고위험 임신부(2인 직장건강보험료 153,761원) 조기진통, 분만출혈,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치료중인 자
분만일자 2015. 10. 1 이후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내용 산모의 산전관리 및 분만비용 지원 (1인 최대 300만원)

문의 남구보건소 ☎054)270-4202
북구보건소 ☎054)270-425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지원 안내

기간 연중

대상 주민등록상 포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내용 정신의료기관 치료비용 (진단검사비, 약제비, 입원비 포함)
정신의료기관 또는 상담기관 치료 개입 프로그램 참여비용 등

금액 1인당 40만원 이내

서류 저소득층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등),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각1부

문의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 ☎054)270-4096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054)270-4198

한국전력!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주택용 전력 적용대상

1급~3급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1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주민등록표상 '자' 또는 '손' 3인 이상)
대가족(주민등록표상 5인 이상)
생명유지장치 사용고객
사회복지시설(일반용 포함)

심야전력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 수급자(주거용 심야)
차상위계층 수급자(주거용 심야)

방법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상담원 연결 0번) 또는 한전사이버지점

문의 '매우만족 서비스' 한전포항지사
고객지원부 ☎054)271-7211, 7223, 7124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는 의무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대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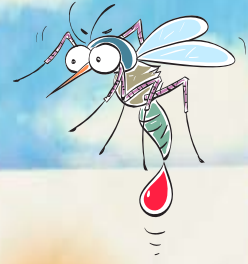
기준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구입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 등 3만원이면 우리 가정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포항북부소방서 ☎054)260-2180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Zika virus disease)



병원체

- ▶ 지카바이러스(Zika virus)로, 뎅기, 치쿤구니아, 황열 바이러스와 동일한 Flavivirus 계열
- ▶ 1947년 우간다 붉은털 원숭이에서 바이러스가 최초로 확인
- ▶ 1952년 우간다, 탄자니아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발견

감염 경로

- ▶ 주된 전파 : 숲모기에 의한 전파로 감염자와 일상적인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음
*이집트 숲모기(Aedes aegypti)가 주된 매개체이나 국내 서식하는 흰줄 숲모기(Aedes albopictus)도 전파가능
- ▶ 기타 경로 : 감염자와 성접촉에 의한 감염, 산모에서 태아로 수직감염, 수혈을 통한 감염
- ▶ 잠복기 : 2~14일

주요 증상

- ▶ 특징적인 증상인 반점구진성 발진과 함께 관절통, 결막염(결막충혈), 근육통, 두통이 동반
- ▶ 증상은 3~7일 정도 경미하게 진행되며 약 80%는 불현성 감염
- ▶ 합병증 : 신생아 소두증 및 중추신경계 장애, 길랭-바레증후군과의 연관성 보고됨

치료

- ▶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로 대부분 회복되며,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해열제, 진통제 등의 처방을 받으면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예방 수칙

- ▶ **여행 전**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 현황 확인 (질병관리본부 www.cdc.kr 및 해외여행질병 정보센터 travelinfo.cdc.go.kr) • 모기예방법을 여행 전에 숙지 • 모기기피제 및 밝은 색의 긴팔 상의와 긴 바지 의류 준비 • 임신부는 환자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출산이후로 연기하거나 여행 전 의료기관 방문하여 태아의 건강상태 체크하기
- ▶ **여행 중**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 • 밝은색의 긴팔 상의와 긴 바지 의류 착용 • 진한 향의 화장품이나 향수 사용 자제 • 모기기피제는 노출된 피부나 옷에 얇게 바르고, 눈이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기
- ▶ **여행 후**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진과 함께 관절염, 근육통, 눈충혈, 두통 중 1가지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 귀국 후 1개월간은 헌혈 금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가임여성은 귀국 후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 발생국가 여행력이 있는 사람과 최소 2개월간(임신부: 임신기간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하기 • 임신부는 산전진찰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산전진찰 받기

예방 방법

- ▶ **흰줄숲모기 서식처 제거**
주1회 집 안팎 인공용기 고인 물 확인 및 제거 • 페타이어의 경우 제거 또는 비닐막으로 덮음
- ▶ **안전한 숙소 꾸미기**
문과 창에 방충망 설치 • 모기가 많은 가정에서는 모기장 사용 권장
살충제 및 모기향 사용 시 취침장소를 밀폐시킨 후 사용하고, 취침 전에는 환기
- ▶ **야외활동 시 예방법**
진한 향의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 야외 활동 후 반드시 샤워를 하고 땀을 제거
복장은 밝은색의 긴바지와 긴소매의 품이 넓은 옷 착용
모기기피제는 노출된 피부나 옷에 얇게 바르고, 눈이나 입에는 사용금지

문의 **북구보건소 ☎054)270-4133 / 남구보건소 ☎054)270-4033**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浦項 迎日臺海水浴場)

1975 ~ 2016년

인근 포항 송도해수욕장이 절정이었던 그 시절,
이곳은 북부 두호동 일대의 바닷가일 뿐이었다.
그러다 1975년 개장 당시 북부해수욕장이라 했고,
2013년 6월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다.

영일만의 바다 풍경이 건너다 보이며, 포스코 야경이 절경이다.
이른 새벽과 저녁 무렵이면, 산책풍경 또한 즐겁다.
해상 100m에 대한민국 최초의 해상누각이 떠 있다.

포항국제불빛축제와 포항바다국제연극제 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가 열려 여름 개장시기에 전국의 피서객들이 찾는다.
영일대해수욕장은 경포대, 해운대해수욕장과 더불어
대한민국 3대 해수욕장으로 손색이 없다.



북부해수욕장, 두호동 일대 (1975)



해맞이공원에서 본 북부해수욕장 (1999)



현재의 영일대해수욕장 (2016)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시정퀴즈

포항, 울산, 경주가 모두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라는 공통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동맹은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위해 결성되었다. **열린포항 2016년 8월호 시민행복 코너**에 소개된 이 동맹의 이름은?



7월호 추첨에 당첨되신 분은
오은채(대이로), 황현주(아치로), 김인숙(이동로)
임은화(기계면), 김순분(포스코대로), 김단비(대송면), 김지은(해병로)
이성일(경주시 안강읍), 고민서(새천년대로), 유정현 (전남 여수시)입니다.



포항의 관광명소를 담은 사진과 짧은 글을 보내주세요.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잠깐의 휴식을 가져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가는 영일대해수욕장 (최정식님, 장량로)



우리골목 제한절경 (이현주님, 대해로)



영일대해변 모래썰매장 쌍둥이 아들 (진봉춘님, 장량로)



영일대해수욕장 문화가 있는 날 축제 (권도현님, 증흥로)

'그때 그 시절에는...'에서는 포항의 숨은 역사를 찾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입니다. 역사 속에 잠들어 있는 한 장의 사진이 현재에 응답하는 순간, 역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포항을 있게 한 과거 포항의 향토상을 담은 사진을 찾습니다. 시민들이 포항의 변천사를 알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료를 보관하고 계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시정퀴즈'와 '손바닥 세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름과 주소, 연락처, 사진과 사진설명**을 기재해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우편으로 8월 10일까지 보내주세요. 정답자를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1(대잠동) 포항시청 홍보담당관실 열린포항 편집담당자 앞
- **전자우편** kamkam00@korea.kr [**열린포항**]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054) 270-2232~4, www.ipohang.org로 신청해주세요!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환동해 중심 창조도시 포항

53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창조경제



해양관광



도시 재창조



상생발전

